

共產主義이데올로기와 開放化政策 :

鄧小平體制의 統治理念分析

趙 政 男

- | | |
|----------------|-------------|
| 概 括 | Ⅲ. 統治理念의 內容 |
| I. 序 言 | Ⅳ. 統治理念의 性格 |
| Ⅱ. 分析을 위한 概念操作 | Ⅴ. 結 言 |

概 括

中共 鄧小平體制의 統治理念을 일반적으로 開放的이라고 말한다.

特定한 共產主義體制가 開放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의 그 '開放'에 대한 意味는 多樣할 것이나, 이를 理念的인 側面에서 나타나는 '關心領域의 擴大'와 體制運營의 側面에서 나타나는 '柔軟性的의 增大'라는 立場으로도 說明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立場으로 共產體制의 開放性을 생각하면,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特定の 時期, 特定體制에 局限해서만 이를 말할 수는 없다. 中共의 鄧小平體制가 開放性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맥락에서의 이야기다.

周知하다시피 共產體制의 統治理念이나 體制的 性格은 基本的으로 開放性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뚜렷한 單線的인 理念目標과 圖式的인 體制維持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圖式性은 體制維持過程을 겪으면서 틈이 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發展이 問題일 수 있기 때문이다.

共産體制가 發展問題를 생각하게 되면 이를 위한 여러가지의 代案들과 다른 나라의 長·短點을 살피게 된다. 理念的인 側面에서 關心領域이 점차 擴大되고, 體制運營의 柔軟性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共産體制와 그들의 體制維持過程에서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이러한 開放의 性格에는 커다란 限界가 있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理念的인 面에서 關心領域의 擴大가 理念의 壁을 뛰어 넘거나, 體制維持에서 나타나는 柔軟性이 그들 體制의 中軸를 代替할 수는 없다.

共産體制도 生存과 發展을 指向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體制存立의 根據를 버리지 않는다고 있다. 여기에서 共産體制의 開放이 가지는 普遍的 性格과 함께 鄧小平體制가 가지는 開放政策의 限界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I. 序 言

本稿는 中共 鄧小平體制의 統治理念을 分析하여 그들 體制의 理念的 性格을 밝혀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에서 나타나는 諸般 特性에 비추어 社會主義體制 一般에서 表出되고 있는 開放性의 意味도 함께 類推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本稿가 추구하고 있는 위와 같은 두가지 目的은 우선 鄧小平體制의 統治理念과 社會主義體制의 開放性 간의 聯關性을 前提로 할 때에만 可能할 수 있을 것이다. 鄧體制의 統治理念이 開放性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鄧體制의 統治理念이라는 것이 獨占的이고 排他的인 位置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또 理念構造의 體系性을 完備한 것으로 보기에 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와 더불어 社會主義體制에서의 '開放'에 대한 意味 또한 統一되어 있거나 明確하지 못하다는 사실과도 無關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가지 限界性에도 불구하고 鄧體制의 統治概念과 開放性간의 聯關性만은 별다른 無理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선 鄧體制

의 統治當局者들이 그들의 政策路線은 ‘對外開放’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公式的으로 強調하고 있다는 사실과¹⁾ 또한 社會主義體制의 開放에 대한 多樣한 側面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定義들이 鄧體制의 實際의 屬性들과 近接되어 있다는 事實로도 兩者間의 聯關性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는 그 構成에 있어 전체를 다음과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부분은 「分析을 위한 概念操作」으로 이 부분에서는 鄧體制의 統治理念分析을 위한 概念의 틀(conceptual framework)를 設定하고, 이 틀을 형성하고 있는 個別的인 概念單位들에 대한 意味를 살피려 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統治理念의 內容」으로 여기서는 앞에서 設定된 分析의 틀을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에 代入하여 그들 理念體制가 견지하고 있는 內包와 外延을 생각해 보았다. 세번째 부분은 「統治理念의 性格」으로 여기에서는 이상의 分析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는 鄧小平體制 統治理念의 전반적인 性格을 나름대로 整理하고 이어서 간단한 結論을 導出하려 하였다.

周知하다시피 特定の 理念體系를 分析的 立場으로 接近하려 할 때는 現象에 대한 單純化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論理展開에 있어서 普遍性의 側面보다는 現象說明을 위한 恣意性의 側面이 전반적으로 強調될 수밖에 없는 限界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같은 限界性은 本稿에서도 克服되지 못하고 있다.

II. 分析을 위한 概念操作

하버(Robert Haber)는 特定이데올로기가 가지는 普遍的 構成要素를 ① 一聯의 道德的 價値體系 ② 이러한 價側體制가 實現될 ‘理想社會’(good society)에 대한 設計 ③ 現存의 社會構造에 대한 組織的인 批判과 社會

1) 王珏, 周勤波, 王彤舜, 楊榮紳(共編), 「鄧小平文選」〈輔導講座〉, (北京, 新華出版, 1983), pp. 60~66.

變動에 대한 分析 ④ 未來社會建設에 대한 政略의인 立案 등의 네가지를 들고 있다.²⁾

비교적 널리 수증되고 있는 이같은 立場으로 特定이데올로기의 屬性을 압축한다 하여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包括性和 抽象性的 정도는 좀체로 줄어들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特定한 政治體系 특히 그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인 指向性이 대단한 共產主義 政治體系의 統治理念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이를 보다 單純化하고 分明히 하기 위하여 操作的인 概念容器 (conceptual container)의 必要性을 가진다.

特定한 統治理念體系를 分析함에 있어 그러한 理念體系를 몇가지의 分析을 위한 概念容器로 概念化함으로써 그와 같은 分化된 概念의 틀을 통하여 보다 體系의인 內容分析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方法은 現實의인 면에서 現象을 지나치게 單純化할 수 밖에 없다는 限界性을 가진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方法은 ‘抽象化的 段階’(the ladder of abstraction)를 거침으로써 現象에 대한 ‘觀測的 概念’(observational concept)을 ‘理論的인 概念’(theoretical concept)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長點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³⁾

本稿는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를 分析하기 위한 概念容器로 ‘理想理念’, ‘現實理念’, ‘實踐目標’ 등의 세가지의 位階的 分析單位를 提示한다.⁴⁾ 理想理念이란 特定 統治理念에서 나타나고 있는 最高의 指向目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그들 成員들에게 統一的이며 意識的인 世

2) Robert A. Haber, "The End of Ideology as Ideology," in Frank Lindenfeld (ed.), *Reader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Funk & Wagnalls, 1968), pp. 558~559.

3)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in *APSR* (Dec. 1970), pp. 1039~1041.

4) 여기서 提示한 分析概念들은 이데올로기體制를 分析的인 概念單位的 개발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던 여러 학자들의 分析概念에서 많은 示唆를 받았다.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New York, 1936):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London, 1968): Robert E. Lane, *Political Ideology*(New York, 1962), 參考.

界觀 形成의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理念體系라고 할 수 있다. 現實理念은 特定 理念構造의 中間의인 理念目標로서 理想理念의 子概念的 形態이다. 따라서 이는 理想理念을 현실에 부합되게 說明하는 機能과 함께 최하위분석단위인 實踐目標의 理念的 基盤으로서의 역할도 가진 成員들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行動에 대한 合理的인 근거를 마련하는 理念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實踐目標은 特定 理念體系가 그의 世界觀과 理念的 指向性을 實際的 行動으로 具體化시키는 直接的이고 明示的인 行動指針이자 現實政策이라고 볼 수 있다.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를 위와 같은 分析圖式에 따라 本 稿에서는 理想理念에 해당하는 概念으로는 「馬列主義, 毛澤東思想」(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을, 現實理念에 해당하는 概念으로는 「社會主義民主」(社會主義的 民主主義), 實踐目標로는 「四個現代化」政策을 각각 設定하려 한다. 이와같은 分析單位의 區劃을 記述的으로 설명하면 鄧小平體制는 그들의 統治理念 操作에 있어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의 理念體를 最高의 價値를 부여하는 理想的인 目標로 設定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理想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들 體制의 各 分野에서 「社會主義民主」를 實現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社會主義民主」의 實現이 그들의 궁극적인 理想인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을 達成하기 위한 大前提로 보고 있으며, 또 이같은 「社會主義民主」의 實現은 具體的으로 그들 社會에서 「四個現代化」라는 現實的 問題의 해결로부터 可能할 수 있다고 보는 鄧體制 理念構造에 대한 單純化된 說明方式이다.

여기에서는 鄧體制의 統治理念 分析單位로 設定하고 있는 個別概念에 대하여 좀 더 具體的인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理想理念인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이라고 하는 두개의 個別理念들을 하나의 理念體로 연결한 複合概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鄧體制의 「理想理念」단위로 動員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나 「毛澤東思想」은 그 모두가 독자적인

個別理念으로 충분히 理想化되고 敎條화된 理念들이기 때문에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 새삼스럽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의 個別概念들이 同等한 資格으로 理想理念의 位置에서 共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다음은 現實理念인 「社會主義民主」의 概念이다. 이 概念은 前者의 「마르크스-레닌主義」나 「毛澤東思想」과 같이 그렇게 一般화된 概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概念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socialist democracy)의 中共式 表現으로 鄧體制에서는 類似概念인 「高度民主」⁵⁾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鄧體制에서는 「社會主義民主」에 대해서 明示的으로 分明하게 이를 強調하는 資料를 찾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統一된 概念定義마저 이뤄지고 있지 못한 狀態이다. 그러나 本稿가 이같이 그들의 文獻에서 아직도 널리 強調되지 않으며, 分明한 概念定義마저 이루고 있지 못한 「社會主義民主」를 鄧體制 統治理念構造의 現實理念으로 操作한 것이 概念自體가 갖는 語源的 意味와 鄧體制的 現實的인 理念指向性이 大體로 一致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判斷에서다.

「社會主義的 民主主義」(社會主義民主)는 일반적으로 「부르조아民主主義」와 대칭적으로 社會主義者들이 사용하는 概念으로, 社會主義圈에서는 이를 대체로 ① 人民들을 위하여 人民들에 의해 形成된 하나의 社會體制 ② 비밀투표에 의하여 거의 有權者의 100%가 참가하는 보통, 평등, 직접적인 선거형태 ③ 人間에 의한 人間의 착취나 位階的인 社會階級들에 의한 착취나 敵對的인 階級關係에 의한 착취의 소멸 ④ 失業, 高齡, 疾病, 貧困 등과 같은 社會的 不安으로부터 해방 ⑤ 少數民族을 포함한 모든 構成民族들의 權利와 의무에 있어서의 同等性 ⑥ 民族主權과 國際社會主義組織에 있어서의 同等權 등의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⁶⁾

5) 廖蓋隆, 「中共〈庚申改革〉方案」〈七年十代〉(홍콩, 1981. 3), pp. 38~48.

6) Jozef Wilczynski,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Marxism, Socialism, and Communism* (New York, De Gruyter, 1981), p. 535.

한편 소련 共產黨의 경우는 1961년에 刊行된 그들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礎」(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에서 「社會主義의 民主主義」에 대해 보다 分明한 概念定義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同年 10월 소련 共產黨에 의해 採擇된 「黨의 新綱領」에서 公式적으로 그들 統治理念의 一樣態로 認定하였다.

그들은 「社會主義의 民主主義」가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의 移行段階인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에서 派生된 概念’이며 또한 이는 ‘人民主權의 보다 새롭고 높은 歷史的 形態’로 규정하면서 「社會主義의 民主主義」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⁷⁾

즉, 社會主義段階가 보다 발전함에 따라 그들이 갖는 民主主義概念도 擴大되어 從前까지의 政治的 側面에서의 民主主義는 물론 이제는 勞動人民의 社會的 權利에 있어서도 그 영역이 擴大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社會의 民主主義概念이 從前까지의 프롤레타리아 民主主義단계에서 진일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보다 發展, 擴大된 개념이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라는 것이다.⁸⁾

이같은 立場에 따라 그들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전체 인민의 民主主義이며 또한 형식적인 宣言에서 뿐만 아니라 現實的인 實踐을 전제로 한 民主主義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具體的 屬性을 가진 것으로 이를 파악한다.⁹⁾

첫째,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和睦한 社會’를 前提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和睦한 社會’라는 것은, 모든 供給과 生産은 그들의 生産手段, 政治權力 및 權利와 의무에서 동등하며, 어느 特定階級이나 階層이 더이상 生産手段을 專權하거나 또한 生産手段을 他人에 대한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

7) "Fundamentals of Marxism-Leninism", in Josep L. Nogee(ed.), *Man,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 46.

8) *Ibid*, pp. 47~48.

9) *Ibid*, pp. 49~54.

할 수 없다. 모든 政治·社會的 특권이나 制限은 제거된 사회라는 것이며, 이와같은 바탕위의 民主主義가 바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둘째,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아래서는 國家機能의 分化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본다. 그들은 社會主義의 勝利는 國家의 근본적인 변화를惹起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착취계급의 제지와 社會의 道德的이고 政治的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家存在의 원인들이 제거되어 國家의 機能이 변화될 수 밖에 없으나 계급소멸자체가 國家消滅로 직결될 수는 없다. 즉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상태에서도 強力한 國家는 계속적으로 存在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理由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① 社會主義의 勝利이후에도 國家形態는 상당기간 經濟, 社會關係, 文化 등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公共指導形態라는 점 ② 社會主義段階에서도 人民들의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약간의 不平等(심리적인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때문에 별도의 權力體가 존재하지 않고는 社會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의 적절한 해결이 어려우며 ③ 社會主義가 世界的인 규모로 확대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社會主義를 帝國主義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등의 실제적인 機能때문에 國家의 存在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또하나의 특징은 勞動者들의 政治·社會的 權利的 擴大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權利는 부르조아적인 無制限的 自由를 內容으로 하는 權利와는 다르다. “個人들의 無制限的인 自由라는 것은 自由가 아니며 독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自由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체사회에 害를 끼치는 것이며, 따라서 自由의 制限은 분명히 人民에게는 이익이며 또한 새로운 體制의 民主的 性格을 강화하는 것이지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본격적으로 無制限的이거나 無定形的인 아나키스트들의 自由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自由의 屬性을 규정하고, 이러한 自由를 內容으로한 政治·社會的 權利的 擴大가 참다운 民主主義的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鄧體制 統治理念分析에 있어 現實理念으로 設定한 「社會主義民主」 개념에 대해서 社會主義圈 一般과 소련 共產黨에서 부여하고 있는 性格을 개괄하였다.

鄧體制 統治理念分析을 위한 最下位 分析單位인 實踐目標은 「四個現代化」이다. 周知하는 것과 같이 四個現代化政策은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오래된 發展政策의 하나다. 鄧體制에 와서 그 政策이 새롭게 定立된 것은 아니거니와,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現代化的 추진이라는 分명한 內容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政策概念에 대한 특별한 부연설명에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Ⅲ. 統治理念의 內容

文革期間만 하더라도 그들이 견지했던 路線의 性格때문에 浮沈을 거듭하였던 鄧小平 一派가 現今의 中共體制에 支配權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鄧一派는 執權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對內的으로는 實用主義의 路線을 견지하고 對外的으로는 開放의 旗幟를 높이 들고서 諸部門에서 自國의 落後性을 克服하고 現代化를 달성하기 위하여 انسان힘을 쏟고 있다. 本章에서는 鄧體制가 그와 같은 社會主義 強國을 건설하기 위하여 內外에 표방하고 있는 政治的 目標와 實踐路線 그리고 이를 正當化하고 合理化하기 위하여 펼치는 統治理念操作의 內容을 前章에서 設定한 바있는 概念의 틀을 통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먼저 現在의 中共 統治當局者들의 關聯文獻에서 나타나고 있는 理念의 性向에서 分明明하게 認識할 수 있는 最高의 指向目標, 즉 '理想理念'은 前記한 바 대로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이다. 이같은 立場은 鄧體制 統治理念의 骨格이 形成되었던 會議라고 볼 수 있는 中共黨 十一屆 三中全會의 준비를 위해 열렸던 中央工作會議(1978. 12. 13) 閉幕연설에서 鄧小平이 思

想解放을 위하여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의 正確한 指導의 必要性을 강조한 이래,¹⁰⁾ 三中全會에서는 하나의 鄧體制 統治理念의 基本原則으로 具體化 되었다.

三中全會이후에는 鄧의 文獻에서 여러 차례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을 견지하자, “우리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의 黨”(我們這個黨是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의黨)등의 言明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들 理念體制에서 이 개념이 가지는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¹¹⁾

中共當局이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이라는 複合的인 理念體를 理想理念에 位置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統治理念操作의 一様態라고 볼 수 있다. 中共은 毛澤東의 生前에는 물론 華國鋒의 過渡期間중에도 그들 統治理念構造에서 나타나고 있는 理想理念은 「마르크스-레닌主義」였으며 이는 또한 여타 社會主義體制의 統治理念構造에서도 同一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中共이 現在의 鄧體制 以前에도 「毛澤東思想」을 강조해 온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때의 毛思想은 本稿가 마련하고 있는 現實理念차원의 강조였다고 볼 수 있다. 즉 “毛澤東思想을 통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달성하자”는 式의 強調에 局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鄧體制 이전의 相當期間을 통하여 中共當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을 同時에 강조한 적은 많았으나 이때도 지금과 같이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식, 즉 複合構造를 가진 單一概念으로서의 강조가 아니라 個別理念인 「馬列主義」와 또 다른 個別理念인 「毛澤東思想」에 대한 同時的인 強調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본다.¹²⁾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現在의 鄧體制에서는 「馬列主義」와 「毛澤東思想」을 分離된 個別的 理念體로 보기 보다는 複合構造를 가진 單一概念으

10) 鄧小平,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鄧小平文選」, p. 131.

11)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 p. 230.

12)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21.

로 이를 사용하면서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의 最高性和 指導性を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過去와는 다른 鄧體制의 理念操作 內容을 類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鄧一派가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兩面的인 態度를 살필 수 있다. 鄧小平一派는 執權後 文化革命을 批判的으로 評價하면서 이 당시의 毛澤東의 指導路線을 重大한 錯誤로 비판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들은 毛澤東이 그가 晩年에 主導한 文化大革命期間의 毛의 指導路線에 대해서는 分明하고 嚴重한 批判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毛澤東의 文革期의 指導路線이 一時的인 착오였다고 비호하는 등 毛澤東을 文革의 상처로부터 救出하기 위하여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偉大性を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¹⁴⁾ 특히 毛澤東思想에 대해서는 毛澤東 個人에 대한 部分的인 批判에도 不拘하고 그동안 직접적인 공격을 自制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 眞理와 中國革命의 實踐을 結合한 毛澤東思想을 非難하는 것을 잘못된 思潮로 몰아 붙였다.¹⁵⁾ 뿐만 아니라 毛思想을 ‘偉대한 毛澤東思想’으로 계속하여 옹호하면서 毛澤東思想이 中共黨과 國家의 指導思想으로 確立되는 것은 中國革命發展의 必然的 結果라고까지 치켜세운다.¹⁶⁾

이상의 論議에서 鄧體制가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에 대해서 가지는 난처한 立場을 읽을 수 있다. “批判하고 否定하고 싶으나 批判하고 否定할 수 없는 毛澤東과 毛澤東思想”이 그들 體制에 加하는 當惑感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狀況을 打開하기 위한 理念操作으로 毛澤東思想의 現實理念에서 理想理念으로의 格上을 생각할 수도 있다.

13) “毛澤東同志在他晩年發動和領導的‘文化大革命’，導致我國全面內戰和打倒一切。這是一個嚴重的全局性的錯誤”王珏外(共編)，「鄧小平文選」〈輔導講座〉p. 171.

14) “毛澤東同志是偉大的馬克思主義者，是偉大的無產階級革命家，戰略家和理念家。他雖然在‘文化大革命’中犯了嚴重錯誤，但是就他的一生來看，他對中國革命的工績遠遠大於他的過失，他的功績是第一位的，錯誤是第二位的，王珏外(共編)，「鄧小平文選」〈輔導講座〉，p. 174.

15) 鄧小平，“堅持四項基本原則”「鄧小平文選」，p. 157.

16) 王珏外(共編)，「鄧小平文選」〈輔導講座〉，p. 174.

다음, 本稿에서 現實理念으로 設定된 「社會主義民主」에 대해서 살펴 보자.

前記한 바와 같이 中共의 文獻에서 「社會主義民主」에 대한 位置賦與나 또는 分明한 이에 대한 概念定義 또한 찾아 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本稿에서 이 概念을 鄧體制 統治理念構造의 現實理念으로 設定한 것은 그들의 明示的인 文獻資料에서라기 보다는 그들의 文獻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現實觀, 理念觀을 單純化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진 結果로 볼 수 있다.

「社會主義民主」(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앞장에서 살핀 바대로 「資本主義的 民主主義」나 「부르조아 民主主義」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인 대칭 개념이며, 이는 또한 社會主義와 民主主義라는 두개의 個別理念體를 결합시킨 複合的 單一概念이다. 「社會主義民主」가 가지는 이같은 複合성과 二重성에 근거를 두고 鄧體制는 그들의 이른바 '혁명없는 社會主義建設'의 論理를 正當化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점에 근거를 두고 그들 體制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中間的인 政策路線을 合理化시키는 方便으로 活用하고 있다.

다음, 鄧體制의 實踐目標의 概念單位로 設定하고 있는 「四個現代化」는 前記한 두가지 上位理念에서 보다는 훨씬 具體성을 띠고 있다.

이는 中共의 現代化計劃에서 강조되고 있는 實用性, 開放性, 技術性, 專門性을 包括하고 있는 政策路線으로 四個領域, 즉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 영역에 대한 발전계획이다.

「四個現代化」의 部門別 內容을 보면 農業部門에서는 農業政策의 유연성을 전지, 多樣한 責任制와 農村集體所有制를 擴大함으로써 生産力向上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¹⁸⁾ 工業部門에서는 農業現代化를 促進할 수 있는 工業力의 신장, 新技術·新設備의 擴大, 科學技術人力の 養成, 企業管理能力

17) 廖蓋隆, “保證全體人民每個人的自由和民主權利的社會主義民主”, 「中共〈庚申改革〉方案」〈七十年代〉, p. 39.

18) 王珏外(共編), 上同, pp. 46~52.

의 提高, 生産物의 品質向上 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또한 國防部門에서는 戰鬥力 向上, 軍裝備 現代化, 精兵原則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具體的으로 非戰鬥人員과 統率機構, 指揮機構人員과 幹部人員을 감소할 것과, 退休制度의 導入등과 같은 體制改革을 통하여 軍隊의 士氣를 진작시키며, 現代化된 戰爭知識을 위한 軍事訓練의 강화와 전반적인 政治思想教育의 軍隊內에 擴大·強化를 지적한다.²⁰⁾ 科學技術部門은 現代化計劃의 最大關鍵이며 또한 이는 生産力이며 偉大한 革命力量이기 때문에 이의 발전을 위한 體系的인 教育의 실시와 과감한 門戶開放을 통한 先進技術의 導入을 강조하고 있다.²¹⁾

Ⅳ. 統治理念의 性格

鄧體制的 統治理念의 性格을 말할 때 흔히 實用主義의 이라든가 開放的 이라든가, 修正主義의 이라고들 한다. 별다른 概念의 統一이나 合意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莫然하고 一般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用語들이다.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그들의 文獻에서 나타나고 있는 鄧體制的 理念的 性格은 그들이 現代化의 根本前提로 내세우고 있는 ‘四項基本原則’, 즉 社會主義道路의 堅持, 無產階級專政 堅持, 共產黨의 領導 堅持, 「馬列主義, 毛澤東思想」 堅持라고 볼 수도 있다.²²⁾ 여기에서 말하는 ‘四項基本原則’은 總體的인 體制性格으로 社會主義路線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며, 現實的인 中共의 政體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無產階級專政’을 그 內容으로 하고, 體制運營의 主導勢力은 共產黨의 優越的인 位置를 固守하는 ‘共產黨의 領導’, 體制維持를 위한 統治理念上的 最高의 指導理念으로는 「馬列主義, 毛

19) 鄧小平, “關於發展工業的幾點意見” 「鄧小平文選」, pp. 28~31.

20) 鄧小平, “精簡軍隊提高戰鬥力” 「鄧小平文選」, pp. 248~254.

21) 鄧小平, “在全國科學大會開幕式上的講話” 「鄧小平文選」, pp. 82~97.

22) 王珏外(共編), 「鄧小平文選」〈輔導講座〉, pp. 67-80 및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上同, p. 150-151.

澤東思想」을 각각 견지하는 것으로 整理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이상에서 살핀 鄧體制의 理念的 性格에 대한 일반적인 言明과 中共當局의 公式的인 立場을 이미 論議된 分析的 視覺을 통하여 體系的으로 接近해 보고자 한다.

1. 理想理念的 次元

理想理念은 원래 實質의 意味 보다는 名目的이고 象徵的 意味가 강한 概念單位이다. 따라서 이 概念單位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놓고 特定 統治理念의 性格을 區劃한다는 것은 적절한 態度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理想理念은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名目性和 象徵性和 같은 限界에도 不拘하고 特定한 體制維持의 規範的 價値와 아울러 그들 體制의 指向意志를 確認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分析으로 特定 理念體系의 전반적인 性格을 概括할 수는 있다고 본다.

前記한 바와 같이 本稿에서는 鄧體制의 理想理念으로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을 說定 하였는데 이것으로 다음의 몇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理想理念이 複合的인 概念이라는 사실이다.

具體的으로 이는 「마르크스主義」, 「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이라고 하는 세가지 個別理念들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複合的 構造를 가진 單一概念을 形成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特定 統治概念이 複合성을 띠우면 띠울수록 그것이 內包하고 있는 抽象性은 더한 한편 이에 반하여 그것이 준비할 수 있는 正當性 마련의 空間은 훨씬 넓다고 본다.

抽象性의 問題부터 생각해 보자.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을 構成하고 있는 個別概念을 「마르크스主義」, 「레닌主義」, 「毛澤東思想」으로 나누거나 또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하나의 個別概念으로 하고, 「毛澤東思想」을 또 하나의 個別單位로 나누든간에 理想理念을 構成하고 있는 個別單位들부터가 지극히 包括的이고 多

樣性을 內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概念이다. 따라서 극히 抽象性을 이미 지니고 있는 個別 理念體들을 다시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單一概念으로 操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가진 抽象性和 包括性的 정도를 더하는 것이 되며 이에따라 그 概念의 明示적이고 分명한 定義 또한 거의 不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馬列主義, 毛澤東思想」이라는 理念體를 두고 볼 때 中共의 最高 指導理念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인지, 아니면 「毛澤東思想」인지 또는 「마르크스主義」인지 「레닌主義」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의문은 局外者에게 局限된 것이 아니라 그들 體制當局者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分명한 사실은 이러한 複合的 理念體가 가지는 概念上的 不分明性이 體制局當者들에게는 當或感보다는 오히려 대단히 便利한 口實로 利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같은 不分明性이 그들에게 훨씬 더 넓은 正當化의 空間을 마련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現實적으로 어떤 政策方向을 견지하든 또는 어떤 路線을 강조하려고 하든지 간에 그같은 諸般路線과 政策의 內容과 性格에 상관없이 이 複合構造를 가진 最高의 理念體가 全天候적으로 그것을 合理化시켜 주고 正當化시켜 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普遍的인 社會主義性을 강조하려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援用하여 이를 正當化 시킬 수 있는가 하면, 階級鬭爭과 같은 強硬政策이 要請될 때에는 「毛澤東思想」이라는 훌륭한(?) 正當化의 수단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最高의 指導理念이라고 할 수 있는 理想理念을 극히 抽象化시켜 그의 明瞭性을 줄임으로서 體制當局者들은 相對적으로 理想理念의 拘束으로부터 벗어나 自由로워질 수 있으며 그들의 多樣한 政策驅使도 폭넓게 保障받을 수 있는 利點을 가진다.

두번째, 理想理念에서 생각 할 수 있는 점은 「毛澤東思想」의 格上이다.

앞에서 살핀 바 대로, 鄧體制가 보이는 毛澤東思想에 대한 公式的인 評價는 毛澤東에 대한 일부의 否定的인 시각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偉大한 思想으로 옹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公式的인 讚辭뒤에 숨겨진 體制當局者들의 內心은 「毛澤東思想」이 대단히 거북스러운 짐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路線의 性格은, 아무리 否定하더라도 毛澤東의 그것과는 확연한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리를 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毛澤東思想」이 그동안 심어 놓은 영향력 때문에 지금 당장 이의 全面的인 파괴를 선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낡았고, 자기네들과의 상당한 거리를 가진 理念體를 金科玉條의 寶物로 계속해서 떠 만들기도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이다.

「毛澤東思想」에 대한 이같은 難處한 입장을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方便의 하나가 理想理念으로의 格上일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즉 「毛思想」을 象徵的이고 名目的인 자리로 밀어 올림으로서 實際的인 拘束力은 피하면서 이를 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格上하는 방법으로 目的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舊思想에 물든 黨僚들이나 軍府에서 일어 날지도 모르는 非難의 소지 또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格上을 통하여 「毛思想」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가지 屬性들을 가지고 現實的인 그들의 政策內容을 合理化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偉大한 指導原則'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活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鄧體制 統治理念構造가 社會主義理念의 普遍性的인 뿌리를 가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中國共產主義의 土着的 性格이 강한 「毛澤東思想」의 두 理念體를 그들의 「理想理念」單位에서 結合시킴으로써 유연성 있는 支持를 確保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個別構造理念體들의 競爭的 共存을 許容함으로 하여 體制의 統治路線定立의 恣意性마저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2. 現實理念의 次元

現實理念 單位로 設定된 「社會主義民主」(社會主義的 民主主義)는 보다 具體的으로 鄧體制 統治理念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는 「社會主義民主」가 앞의 理想理念和 마찬가지로 複合構造를 가진 單一理念體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내는 抽象性的 側面보다도 具體性的 側面이 確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것이 實際的인 拘束力을 가진 現實理念이라는 事實과 또한 그것에 대해 具體的 性格이 일반적인 社會主義理念構造에서는 비교적 分明해진 概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社會主義民主」를 構成하고 있는 兩個別概念간의 相關性的 問題를 보자.

「社會主義」와 「民主主義」의 結合은 具體的인 政策路線에서 「統制와 開放」, 「歷史와 民主」, 「紅과 專」등의 대칭적인 指向性을 合理化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실제로 鄧體制는 經濟運營面에서 統治路線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으면서도 開放을 강조하고 있으며, 權力構造에서 集中의 強化를 부르짖는 한편에서 黨內 民主主義 活性化를 督勵하고 있다. 專의 役割이 現代化의 根本前提라고 斷言하면서, 黨性(紅)을 專의 役割보다 항상 앞세우고 있다.

이렇듯 「社會主義民主」가 갖는 複合性으로 하여 그들 體制當局者는 理想理念에서와 마찬가지로 多樣한 內容의 政策과 路線을 同時에 堅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유연성있는 問題解決 방식을 별다른 制限없이 動員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民主」가 갖는 이러한 폭넓고 多樣한 合理化를 위한 基盤은 그렇게 오래 持續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社會主義民主」라고 하는 하나의 理念體는 이미 ① 一黨支配體制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 ③ 專權의 이고 철저한 한 國家에 의한 諸般活動, 思想, 生活의 철저한 支配 ④ 人權侵害 ⑤ 水平的인 社會的 階級的 存在(黨 엘리트, 技術者, 專門家, 農民 등)등과 같은 體制性格을 容認하는 政治的 概念으로 一般化되어 있기 때

문이다.²³⁾ 「社會主義民主」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政治的인 多樣性을 포용할 수 있는 容器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面에서는 이와같은 全體主義的 屬性을 그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에서 그 限界 또한 分明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鄧體制가 표방하고 있는 政策的인 유연성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限界 또한 類推될 수 있다.

3. 一般的인 性格

이상에서 理想理念과 現實理念의 두가지 分析單位를 中心으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鄧體制 統治理念의 屬性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個別水準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屬性을 종합하면서 그들 理念體系의 일반적인 性格을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 理念體系의 過渡期性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鄧體制의 理念構造는 明瞭性을 缺하고 있는데 이같은 不分明性이 바로 鄧體制의 過渡的 性格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理念體系의 不分明性은 우선 理想理念의 複合性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馬列主義」와 「毛澤東思想」이라는 두개의 理念體가 다같이 理想理念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은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가 指向하는 最高目標가 뚜렷하거나 明白하지 못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같은 理想理念의 複合構造는 언젠가는 다시 보다 分明하고 單一理念體로 轉換이 이뤄질 때까지의 過渡的인 것이며 또한 單一理念體로의 移行을 위한 잠정적인 概念形態라고 할 수 있다. 理想理念의 單一化가 「馬列主義」로의 統一이나 「毛澤東思想」에로의 統一이나, 아니면 第三의 統一이나하는 문제는 결국 來日의 中共體制가 어떤 모습으로 生存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鄧體制 統治理念의 過渡期性은 現實理念의 영역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社會主義民主」는 소련등의 東歐圈에서는 비교적 統一된 意味를 가진 概念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中共의 경우는 아직도 分明한 概念에 대한 定義는 물

23) Jozef Wilczynski, *op. cit.*, p. 535.

론 그들 理念構造에서 確固한 자리를 구축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鄧體制에서는 아직까지 過去 中共의 統治理念體系에서 強力하고 分명한 現實理念體로서 機能하여 왔던 「毛澤東思想」과 같은 理念體에 필적할만한 現實理念이 定立되어 있지 못함을 뜻하며 이 점이 바로 鄧體制의 理念的 過渡期性을 말하는 또 하나의 側面이라고 볼 수 있다. 特定統治理念體系에서 現實理念單位가 차지하는 象徵性和 實際性的 정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鄧體制가 그들의 統治理念 操作過程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宿題가 바로 이 점이며 이의 克服이 또한 鄧體制가 안고 있는 過渡期性을 克服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前提일 수 있다.

鄧體制 統治理念構造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性格은 社會主義的 開放性이다.

鄧體制의 이러한 開放性은 그들 體制理念構造의 基礎를 ‘實事求是’로 보는 입장에서 부터 출발하여 具體的인 現代化計劃의 內容이라고 볼 수 있는 ‘對外開放’, ‘專門性的 提高’의 政策路線에서 뚜렷하게 부상되고 있는 基本的인 屬性的인 하나이다.

먼저, 그들이 共產階級世界觀의 基礎이며 마르크스主義的 思想의 基礎이며 毛澤東思想의 基本으로 定義하고 있는 ‘實事求是’를 그들의 立場에서는 모든 것은 實際에서 출발하며(一切從實際出發), 理論과 實際間的 연계(理論聯繫實際)를 내용으로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⁴⁾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實際性을 내용으로 하는 ‘實事求是’ 思想을 충실히 履行한 具體的인 例로 毛澤東의 中國革命過程에서 보인 農村을 통한 都市包圍戰略을 든다. 이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경우에는 찾아 볼 수 없는 革命理論인 바, 그것은 전적으로 毛澤東이 當時의 中國的인 實際를 正確히 인식하고 그의 革命論理를 出發시킨, 그리하여 理論과 實際간의 連繫를 이룩한

24) 鄧小平,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鄧小平文選」, p. 133.

‘實事求是’ 원칙의 實踐이라고 본다.²⁵⁾

요컨대 中共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이러한 ‘實事求是’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하여 世界各國과의 關係를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 必要하며, 특히나 지금과 같이 實際的인 狀況이 많이 變化된 狀況下에서는 資本主義國家들과의 交流量 擴大하며 民資의 유치와 經營合資등과 같은 經濟貿易關係의 발전을 비롯, 中國과 外國과의 技術交流의 擴大 또한 ‘實事求是’를 內容으로 하는 毛澤東思想의 正確한 해석이라고 본다.²⁶⁾

이렇듯 鄧體制는 開放性을 前提로 하는 ‘實事求是’ 원칙을 강조하면서 現代化 達成을 위한 手段의 多樣性을 合理化하고 있다.

鄧體制가 現實的으로 견지하고 있는 開放性은 그들이 추구하는 現代化의 具體的인 內容이라 볼 수 있는 ‘對外開放’과 ‘專門性的 提高’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對外開放問題에 대한 그들의 公式的인 立場은 ‘堅持自力更生的方針，實行對外開放政策’으로 表現되고 있다. 즉 원칙적인 면에서는 自力更生을, 實際政策은 開放을 內容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는 自力更生과 開放政策을 共存시킨다는 論理이며, 이는 또한 排他的인 두 가지 政策을 共存시키고 있는 論理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들 두 政策路線을 開放性을 內容으로 하는 類似概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自力更生에 대한 定義에서 그것이 自給自足이나 鎖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分明히 하고 있는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自力更生과 對外開放은 對立的인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聯系的 關係라는 설명과 또한 鄧體制에서 말하는 自力更生的 具體的 內容이 自國의 現代化를 위한 外資의 유치, 外國 先進科學技術의 導入, 國際的 義務協力の 擴大, 國內商品의 積極적인 海外進出, 對外經濟援助의 강화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에서도 분

25) 鄧小平, “高舉毛澤東思想旗幟, 堅持實事求是原則”, 「鄧小平文選」, pp. 121~122.

26) 上同, p. 122.

명하다.²⁷⁾

鄧體制가 말하는 現代化의 또 다른 하나의 內容인 ‘專門性的 提高’ 또 한 開放性과 서로 연관된 부분임을 살필 수 있다.

鄧小平은 中共의 現代化는 科學分野의 專門性的 提高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科學分野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先進技術에 대한 學習을 강화하고 對外技術交流를 擴大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는 科學(技術과 生産管理 包含)은 非階級性을 가진 것으로 이는 어떤 國家의 발전을 위해서도 有用하다고 보고 中共에서도 이의 적극적인 學習과 交流를 통하여 社會主義建設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여기에서 現代化를 위한 科學分野에서의 專門性을 강조하고 있는 鄧小平의 입장과 이러한 專門化를 높이기 위해 對外的인 交流擴大를 통한 先進技術導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開放指向의 意志를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對外開放’과 ‘實用性的 提高’의 두가지 側面에서 鄧體制가 가지고 있는 開放性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論議에서 確認할 수 있는 鄧體制의 開放性에는 分명한 限界가 있다는 점을 外面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開放性을 內容으로 하는 그들의 四個現代化의 根本前提가 社會主義原則, 共產階級專政, 共產黨領導, 「馬列主義, 毛澤東思想」 등을 內容으로 하는 四原則이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V. 結 言

이상에서 鄧體制의 統治理念構造를 「鄧小平文選」을 中心으로 하여 單純化시켜 보았다.

鄧體制의 統治理念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가지 體制發展의 論理는 결코 새삼스럽거나 특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體制發展의 論理는 어떤

27) 玉珏外(共編), 「鄧小平文選」〈轉導講座〉, pp. 60~66.

28) 上同, p. 63.

統治理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現在の 中共 統治理念構造에서 찾아볼 수 있는 理念操作的 特異性은 現代化를 위한 그들의 實踐戰略이라고 볼 수 있는 對外開放政策에 대한 적극성이다. 鄧小平 統治理念의 全體的인 內容은 한마디로 對外開放政策을 合理化하고 正當化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鄧小平이 보이는 이러한 開放意志는 中共을 하루 빨리 社會主義 強國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의 目的優先의 政治的 認識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社會主義制度는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具體的 方法과는 다르다.”(社會主義制度並不等於建設社會主義的具體做法)는 그의 言明과 연관된다.

확실히 우리는 鄧體制의 維持過程에서 政策的인 柔軟性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關心領域이 多邊化되고 多樣化되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들의 統治理念構造에서 누누히 강조되고 있는 思想路線의 嚴重性和 黨領導의 絕對性도 읽을 수 있다. 前者가 鄧體制의 開放性을 말하는 것이라면 後者は 鄧體制의 開放性이 갖는 限界일 수도 있을 것이다.